



보도자료

2019년 4월 1일

루프트한자, 한국 취항 35주년 기념 증편으로 주 14회 운항

- 하계 스케줄부터 서울-뮌헨 노선 증편으로 주 7회 운항
- 한국 취항 35주년 기념 증편으로 서울-프랑크푸르트 노선 포함 한국에서 주 14회 운항

유럽 최초 및 유일의 5스타 항공사인 루프트한자 독일항공은 하계 스케줄이 시작되는 오는 4월 1일부터 서울-뮌헨 노선을 증편하여 매일 운항한다고 1일 밝혔다.

현재 해당 노선은 루프트한자 단독으로 직항을 운항하고 있다. 지난 2007년 첫 운항을 시작 후 하계 스케줄 기준 주 6회 운항해 왔으며 올해 증편을 통해 처음으로 주 7회, 매일 운항 예정이다.

루프트한자는 현재 서울-뮌헨 노선에 최신 기종인 A350-900을 운항하고 있다. 유럽 5스타 공항인 뮌헨 공항은 루프트한자의 허브 공항 중 하나로서 최신 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다른 유럽 공항에 비해 짧은 환승 시간 제공 및 한국-독일 자동출입국심사 서비스 도입으로 인해 보다 빠르고 편리한 유럽 내 이동이 가능하다.

이번 증편 운항을 통해 루프트한자는 한국에서 처음으로 주 14회 운항하게 된다. 1984년 서울-프랑크푸르트 노선 운항을 시작 후 단항 없이 운항해 온 루프트한자는 올해 한국 취항 35주년을 맞았다. 서울-뮌헨 노선뿐 아니라 서울-프랑크푸르트 노선 또한 매일 한 편씩 운항함으로써 한국 취항 이래 처음으로 최대 운항한다.

알레한드로 아리아스 루프트한자 한국 지사장은 “루프트한자는 한국의 항공 여행 시장의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오고 있다. 한국에서 프랑크푸르트 및 뮌헨의 두 허브 공항으로 운항함으로써 다양한 목적지로의 연결편 및 승객 편의성을 제공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특히 한국 취항 35주년을 맞이하는 올해 증편을 통해 주 14회 운항을 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한국 승객의 다양한 항공 여행 경험 제공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루프트한자

루프트한자 그룹(Lufthansa Group)은 업계를 선도하는 세계 최대 항공 그룹으로서 허브 항공사(루프트한자 독일항공, 스위스 국제항공, 오스트리아 항공)와 지점간 연결 항공사(유로윙스, 브뤼셀 항공)로 구성된 여객 부문 그리고 항공 서비스(화물, 정비, 기내식 등) 부문의 세 개의 전략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다.

현재 루프트한자 그룹 항공사(Lufthansa Group Airlines)는 2019년 하계 스케줄 기준 103개국 343개 도시로 운항 중이며, 다양한 협력 항공사와 함께 전 세계 400개 이상 목적지로 글로벌 네트워크를 제공하고 있다.



보도자료

2019년 4월 1일

루프트한자 독일항공(Lufthansa German Airlines)은 유럽 최대 항공사이자 스카이트랙스 선정 유럽 최고 항공사 및 유럽 최초 및 유일의 5스타 항공사이다.

한국에서는 35년 이상 단항 없이 운항 중이며 현재 서울/인천에서 프랑크푸르트 주 7회 및 뮌헨 주 7회를 거쳐 유럽 그 이상의 도시로 매일 연결하고 있다. A350을 포함한 최신 및 최대 기종으로 운항 중이며 프리미엄 이코노미 클래스를 포함한 전 객실에 모두 최신 프로덕트를 갖추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한식 기내식, 한국어 엔터테인먼트, 한국인 승무원 등 맞춤형 현지화 서비스는 물론 기내 인터넷 서비스인 플라이넷®을 포함한 다양한 혁신적인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루프트한자 독일항공은 스타얼라이언스의 창립 회원 항공사이다.

[미디어 문의] 루프트한자 홍보대행사 크레인 커뮤니케이션즈

루프트한자 대표 LHG@cranecomm.com
어예나 과장 02-6959-1285/ yneo@cranecomm.com
여유진 사원 02-6959-1286/ egyeo@cranecomm.com